

#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9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송 속성! 최고의 맛은 <b>알싸한홍어</b>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b>정성농장홍삼</b>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b>한국현대생활사</b>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골반, 건강한 인생 <b>바디로직</b>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b>좀바라TV</b>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b>대게직거래장터</b>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b>비타샵</b>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b>미궁장사랑</b>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b>수아비스화장품</b>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b>풍무양고기</b>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존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b>매트리스엠</b>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b>내피알</b>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b>킹닭갈비</b>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b>브리핑대리운전</b>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b>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b>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b>이담채김치</b>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b>전창걸의새싹땅콩차</b>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b>좋은사람과플라워</b>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키예 그리고 <b>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b>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b>와우전복</b>	010-2443-0818 wow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미축에 팔팔 끓인 <b>연지연곰탕</b>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 “MBC 개쓰레기”한 이유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MBC는 개쓰레기야 이것들”

여러분, 이 멘트 기억하십니까? 1월 2일에 대구MBC 텔레비전을 통해 대구 경북지역 방송된 내용입니다. 지역계열사지만 MBC브랜드의 방송에서 MBC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멘트가 전파를 뒀습니다. 그 분은 대구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황모 씨였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이 황모씨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그 날은 대통령 박근혜가 3차 대국민 담화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넘긴 날이었다. 3차 대국민 담화를 듣고 너무 화가 났다. 집회에 나가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 두명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평소 방송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상파에 대한 불만이 많고 종편은 시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 아주 작은 MBC로고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개쓰레기라는 발언을 했다.

지상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구MBC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사드에 관련한 대구MBC의 방송보도를 알았다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송을 내보낸 대구MBC의 용기가 대단하다. 기회가 되면 사과하고 싶다. 정치는 약자편에 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이나 우리 손으로 뽑는다. 대다수가 노동자이며 서민이다.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나 모두 노동자이니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다.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어 한다.”

###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9일(월) 1부 | “MBC는 개쓰레기” 대구시민 단독 인터뷰

- [오프닝] "서울과 달리 시민 입장 선 대구MBC에는 사과 용의"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떠오르지 않는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한발짝도 못나가
- 김기춘, 박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보고했다
- 조윤선, 유진룡에 “인사 피해본 측근들 구제” 회유 시도
- 조윤선 이번주 피의자 소환... '블랙리스트' 사법처리 돌입
- 영화 '변호인' 흥행 후 정부 투자펀드 통제
- [뉴스듣기능력평가] 또다른 AI, 인공지능...여기서 A는?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가
- '소녀상' 관련 아베 큰소리...박근혜는 무엇을 감추고 있다
- 요란하지 않은 김정은 생일...통치기반 확실히 다졌다는 징표?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삼성공화국? 삼성이 5000만 국민 모두를 지배할 수는 없다
- [월요경제학] 부두경제학의 달인 ; 유승민과 경제 무당들
- [공화국 논평] '사퇴 뺑카' 인명진에 대한 강도높은 중대조치

## 세월호 참사 1000일

### 세계일보 아직 인양되지 못한 '세월호 진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 되는 날이다. 2015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기억하시죠? 시안마다 정부와 계속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9월 활동을 마무리 당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이 없는 등 조사권한의 실질적인 한계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아니 방해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정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할 선체 인양도 기약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까지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기를 거듭하더니 올해 4월에서 6월로 인양이 미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 출범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 블랙리스트 파문

### 한겨레 김기춘, 박근혜에 블랙리스트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이를 대통령 박근혜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블랙리스트와는 별도로 박근혜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따로 관리한 이른바 '적군 리스트'도 만들어 박근혜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시절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었지? 특검팀은 박근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東亞日報 조운선, 유진룡에 회유 시도

조운선 장관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수뇌부가 지난해 말 유진룡 전 장관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진룡 전 장관을 따르다 피해를 본 인사들을 배려하는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특검은 유진룡 전 장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수뇌부와 회유를 시도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 朝鮮日報 특검, 조운선 피의자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또한 이규철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특검 수사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국면에 돌입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주 안으로 조운선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김기춘도 소환할 예정이다.

### 경향신문 "‘변호인’ 흥행하자 영화계 통제"

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한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지? 그런데 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은 최근 특검에서 "정부 안에서 '모태펀드 운용을 점검해 <변호인> 같은 영화에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영화 <변호인>이 흥행하자 박근혜 정부가 모태펀드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섰다. 국내 영화 제작비의 40% 이상의 엄청난 비중이 정부 모태펀드에서 나온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출자하고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하는 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이뤄진 투자 통제 역시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최순실·정유라 관련

### 한국일보 "김영재, 차 성형과 관련 있다"

한국일보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컨설팅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녹음파일에서 조원동 전 수석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에 대해 "대통령 박근혜의 성형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후임 경제수석인 안종범에게 김영재와 관련한 내용을 인수·인계를 해 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영재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근혜의 성형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중앙일보** 김종, 김경숙에 “정유라 잘 챙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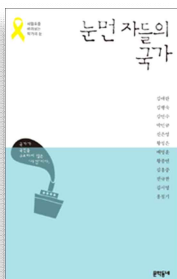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유라의 이화여대에서의 입학 특혜도 김숙이 개입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2014년 당시 김종 차관이 ‘정유라는 최순실의 딸이니까 잘 챙겨야 한다’고 이화여대 김경숙 체육대학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김경숙 체육대학장은 남궁곤 입학처장에게 알리고 남궁곤 입학처장은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을 압박했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경희 전 총장도 2014년 당시에 ‘정유라를 꼭 뽑고 지원도 하라’고 학교 관계자에게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東亞日報** ‘조력자’ 데이비드 윤과 인터뷰

동아일보가 ‘최순실의 집사’ ‘정유라의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프랑스 파리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최순실과 비즈니스를 몇 건이나 했는지 묻자 “한 건도 없다”고 잘라 말하더니 최순실의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집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실과의 인연에는 많이 후회한다고 밝히며 정유라는 정유라가 중학생일 때 처음 봤다고 했다. 또한 정유라가 본인에게 개밥심부름까지 시키며 귀찮게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최순실, 박근혜 선거에 주도적 관여

대통령 박근혜의 배후에서 최순실이 각종 선거를 진두지휘해온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에는 박근혜가 직접 출마하거나 간접 지원했던 선거에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미공개 녹음파일에서는 한 참모가 ‘서울-대전-대구-부산’ 순으로 선거일정을 제안하면 최순실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게 좋다”는 식으로 일정을 수정했다.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 236개 가운데 일부만 청취했으며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도 29건뿐이다. 최순실의 재판도중 녹취록이 추가로 제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늘을 읽는 책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시급한 경찰 개혁**

**경향신문** 청와대, 경찰 인사개입 정황

경찰관의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경찰 고위 간부의 업무 수첩이 공개됐다. 이 수첩은 경찰 고위 간부가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할 당시 작성된 것이다. 이 간부는 경찰의 정기 인사와 특진에 관해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수첩에는 의무경찰 선발과 배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을 정도도 담겼다. 이 수첩에 당장 우병우 아들 이름은 없는 의심이 든다. 또 수첩에는 경찰공무원 공채와 관련된 특정인의 수험번호, 면접과 체력시험 일정, 점수도 적혀 있다.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헛수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합격자는 따로 있으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도된 내용이다.

**서울신문** “탄핵 찬성 < 탄핵 반대”라는 경찰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새해 첫 촛불집회는 경찰은 참가자 수를 2만4000명으로 밝혔다. 그간의 과학적 통계로 참가자 수를 부풀리지 않았을 주최측은 약 60만명이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 집회는 경찰이 3만 7000여명이 모였다고 했다. 서울신문의 비판적 보도. 어떤 눈을 달아야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 논란이 된다. 백남기를 살해한, 인사특혜로 점철된 비리 경찰은 바뀌지 않았다.

**황교안이 잘한다고?**

**경향신문** ‘미친’ 장바구니 물가

황교안이 대통령 대행을 잘한다, 이렇게 수구 신문들이 떠운다. 그런데 AI 못 잡는다, 그리고 물가조차 못 잡는다, 뭘 잘한다는 말인가? 한국일보에 “‘미친’ 장바구니 물가”가 소개된다. 무·당근 등 농축수산물이 평년보다 2배 이상 폭등했다. 무 평균 소매가격은 개당 3096원으로 평년의 2.4배 수준까지 올랐다. AI 발생으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은 말할 것도 없다. (특란 30알)을 기준으로 달걀은 평균 소매가 8960원으로 평년의 1.6배를 기록했다. 수입 쇠고기 역시 6~13% 가격이 뛰었다. 갈치는 한 마리에 9759원, 마른오징어는 열 마리에 2만 8534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20% 이상 올랐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합리적 보수’의 가짜 안보”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합리적 보수’의 가짜 안보라는 제목의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쓴 한겨레 기고문이다.

“유승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사드를 도입하면 안보가 튼튼해질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온 나라의 상인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한-중 관계를 논의했는데 그것이 왜 매국인가?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데, ‘합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이념적 접근은 합리와 거리가 멀다. 색깔론의 낡은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안보현실을 보기 바란다.

안보는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요구한다. 사드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가짜 안보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대통령은 두 명으로 충분하다. 안보가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진짜 안보를 원한다.

이념적 접근이 문제를 방치하고 재앙을 키웠다.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은 널려 있다. 당장 2022년이 되면 19살 남성 전체가 입대해도 병력이 모자란다. 병역제도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안보를 이념의 색깔로 보면 현실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중장기 대책을 세우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색깔론은 협치를 차단한다. 인구 감소로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한다. 도대체 나라를 누가 지키나? 인구가 줄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재정수입도 줄어든다. 사드 같은 불필요한 무기에 돈을 퍼붓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의 군대는 어떤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우리 군대의 전투력을 점검해야 한다. 방산비리와 중복 투자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군대의 인권과 복지 수준이 열악해서 사기가 높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자긍심을 가진 유능한 군대는 불가능하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 한다.”

[성명]

분신하신 정원스님이 부디 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월 7일 밤 10시 반 광화문 열린 시민광장에서 정원스님(속명 서용원)께서 분신하셨습니다. 정원스님이 분신한 자리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사범, 즉각 물러나라 ... 경찰은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경찰의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경찰은 해산하라 ...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스님이 반드시 쾌유하시어 스님이 소망하시던 “일체의 민중들이 행복한 그날”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죽어간 사람들 곁에서 눈물과 고통의 날을 보내왔던 우리는 또다시 아름다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3도 화상이 40% 이상이며, 2도 화상이 70% 이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의식은 없고 기도삽관을 한 상태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장기가 크게 손상을 받았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 응급조치를 우선 한 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화상전문치료병원 이송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진행동은 스님의 지인들과 함께 중환자실 비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률팀장 권영국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스님의 상태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원스님 분신 후 종로서 감식반이 분신현장에 출동하여 소지품을 모두 수거해갔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과의 연락이 시급한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 동안, 법률대리인에게라도 스님의 소지품을 공유해 스님의 뜻을 왜곡하지 모른다는 의혹을 피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1000만 촛불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탄핵되었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공범들은 범죄 비호세력들을 부추겨 시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은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로운 촛불 깊숙한 곳에 담긴 온갖 아픔과 절망과 분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정원스님이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